

존엄한 죽음과 존엄한 삶의 조건들

- 영화와 현실 사이의 생명 윤리*

최성민**

1. 서론
2. 존엄한 죽음의 방식을 성찰하는 영화들
 - 2-1. 선택의 가능성과 범위의 위험성 : 〈씨 인사이드〉
 - 2-2.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죽을 것인가 : 〈다 잘된 거야〉
 - 2-3.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 대한 경고 : 〈플랜75〉
3.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현실적 조건들
4. 결론

국문초록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간을 병원을 오가며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며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흔하다. 인간의 수명은 과거보다 길어졌지만, 죽음을 앞둔 이들의 삶의 질은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 삶을 존엄하게 살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존엄사, 혹은 안락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살펴보았다. 〈씨 인사이드〉, 〈다 잘된 거야〉, 〈플랜75〉가 그 영화들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다. <씨 인사이드>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 잘 된 거야>는 아버지의 죽음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은 딸이 고뇌 끝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플랜75>는 유니버스 영화 <10년>에 포함된 짧은 단편 영화로, 안락사가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은 미래 사회를 표현한 SF 영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과 성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소수의 병들고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탐구의 목적은 죽음을 희망하거나 선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가치를 더 깊게 성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은 죽음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아니라, 존엄한 삶으로부터 존엄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영화를 통한 성찰과 고민을 바탕으로, 현실의 조건들을 보다 명확히 직시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씨 인사이드>, <다 잘된 거야>, <플랜75>, 존엄사, 안락사, 조력 사망, 초고령사회, ‘좋은 죽음’)

1. 서론

한국 사회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곧 접어들 전망이다. 저출산과 첨단 의료 기술의 영향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유

한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1980년대 초에는 자택 임종 비율은 85%에 달했지만, 2003년부터 병원 임종의 비중이 자택 임종의 비율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를 '객사(客死)'라고 했지만, 요즘은 병원에서의 사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추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펴낸 2023년 보건 의료 관련 보고서인 『한눈에 보는 보건 의료(Health at a Glance)』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 기관에서 숨진 사람의 비율은 70%에 달한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평균인 49.1%보다 훨씬 높고, 일본(68%), 헝가리(67%)보다 높은 OECD 회원국 1위의 기록이다.¹⁾ 네덜란드는 23%, 노르웨이는 27%, 스위스는 31%, 미국은 36%, 프랑스는 53% 수준이다.

호스피스 의사인 박중철은 자신의 저서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말기 진단 이후에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기존의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퇴원 후 집과 응급실을 오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장치를 달고 연명의료를 받다 죽고 응급실에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받기도 한다.”라고 적고 있다.²⁾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대부분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서 점차 쇠약해지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제도,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대 사회 대부분의 사

1) OECD, *Health at a Glance 2023*. (<https://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해당 통계는 <https://stat.link/4m3pak>를 참조.

2) 박중철,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홍익출판미디어그룹, 2022, 17쪽.

람들은 죽음의 과정을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아틀 가완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궤적은 길고도 느린 과정이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한 생명의 소멸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고립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되었다고 언급한다.³⁾

2022년 9월 프랑스의 누벨 바그 운동의 대표적인 영화감독이었던 장뤽 고다르 감독이 만 91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접 선택하고 실행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다.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제한적 범위 내의 조력사망⁴⁾의 기회가 허용된 나라이지만, 프랑스는 현재 연명치료의 중단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뤽 고다르는 스위스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생의 마감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마크롱 대통령은 삶의 마지막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프랑스 전 지역에 걸쳐 140회 이상의 시민공회가 열렸다.⁵⁾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

3) 아틀 가완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김희정역, 부키, 2015, 53~55 및 227쪽.

4) 안락사, 조력자살, 조력존엄사, 존엄사 등의 용어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안락사를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존엄사는 안락사와 조력자살은 물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쓰인다. 이 가운데 ‘조력존엄사’라는 표현은 ‘조력자살’ 혹은 ‘의사조력자살’을 지나치게 미화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력사망’ 혹은 ‘조력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조태구, 「미끄러운 비탈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조력존엄사」, 『인문학연구』 제53권,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51-178쪽; 차승현 외, 「국의 의사조력자살 입법례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 제7권 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3, 49-83쪽.

5) 이와 관련해서는 조태구,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위하여: 프랑스의 안락사 논의」,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2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23, 73-86쪽을 참조.

사망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조력 사망을 법제화하였다.

한국에서도 2016년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2022년에는 안구백 의원에 의해 소위 ‘조력존엄사법’이라고 칭해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 아직 법안의 통과까지는 불투명하지만, 2023년 연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한국의 경우, 죽음은 각각의 개개인들에게도 멀거나 무관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죽음은 살아서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임도 분명하다. 누구나 ‘좋은 죽음’을 꿈꾼다.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 가족과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 죽음, 임종 전에 주변 정리를 잘한 뒤에 맞이하는 준비된 죽음을 의미한다.⁶⁾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도 제각각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은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관객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세 편의 영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영화들을 통해 존엄한 죽음이 무엇이며, 존엄한 죽음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의 <씨 인사이드>(2004)와 프랑수와 오종 감독의 <다 잘된 거야>(2021),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제작의 움니버스 영화 <10년>(2019) 중의 단편 <플랜75>가 대상 작품들이다. 알레한드

6) 박중철, 앞의 책, 23쪽.

로 아메나바르, 프랑수와 오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그리고 <플랜75>를 감독한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유럽과 일본에서 최근 가장 각광 받고 있거나 차세대 ‘거장’으로 지목되는 감독들이다.⁷⁾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감독들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들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아 낸 가장 중요한 영화들이라 판단되기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⁸⁾ 앞의 두 작품은 각각의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서 벌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존엄한 죽음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확산시킨 작품들이고, 뒤의 단편은 SF적 상상력을 통해 존엄한 죽음의 ‘선택’이 야기할 수 있는 비극을 풍자한 작품이다.⁹⁾

7)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은 1972년생, 프랑수와 오종 감독은 1967년생,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1962년생이다. <플랜75>를 감독한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1976년생이다.

8) 아마도 한 작품을 더 꼽자면, 2012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제85회 미국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프랑스 영화 <아무르(Amour)>(감독: 미하엘 하네케)가 있겠다. 이 영화도 중요한 영화임에 틀림이 없으나, 최근 프랑스의 존엄사 논쟁 현실과 보다 밀접한 영화라는 측면에서 <다 잘된 거야>를 대상으로 삼았다.

9) 관련된 영화들과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다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전경화, 「<씨 인사이드>와 <아무르>,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인문학지』 제51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34쪽; 전태형, 「영화 <씨 인사이드>를 통해 살펴본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 『인문사회21』, 제14권 3호, 2023, 3429-3428쪽; 성정희, 「영화 <씨 인사이드>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과정」, 『영화와 문학치료』 제1집, 2009, 191-222쪽.

이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은 여러 작품들의 특성과 각각의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안락사 및 존엄사 논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대학 강의에서 이러한 영화를 다루는 수업 모델에 대한 고민까지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 논문은 영화 분석과 존엄사에 대한 문제 의식이 표면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세 번째 논문은 영화 장면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2. 존엄한 죽음의 방식을 성찰하는 영화들

2-1. 선택의 가능성과 범위의 위험성 : 〈씨 인사이드〉

〈씨 인사이드(Sea Inside / Mar Adentro)〉는 칠레 출신의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의 2004년 영화다. 이 영화는 2004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심사위원 특별상, 그리고 2005년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미국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화도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존엄사에 대한 논쟁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하비에르 바르뎀 분)는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인물이다. 자유롭게 드넓은 바다로 뛰어들고자 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낮은 수심 탓에 사고를 당한 라몬은 사지가 마비된 채 28년을 병상에 누워 생활해야만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입에 펜을 물고 짧은 글을 쓰는 것이 전부였다.

자신을 돌보던 가족들마저 점차 나이 들어가면서 라몬은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다른 ‘사지마 비자’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길 희망한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라고 생각한다. 라몬의 아버지, 형과 형수는 오랜 시간 라몬을 돌보느라 헌신적 고생을 했지만, 라몬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한 라몬의 주변에는 가족 이외에도 세 명의 여인이 있다. 심리치료

사 즈네, 변호사 줄리아와 공장 노동자 로사가 그들이다. 줄리아는 라몬이 스페인 법으로 금지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다.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어 다리가 불편한 줄리아는 라몬의 상황을 좀 더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줄리아는 라몬이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죽음을 희망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소송을 준비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라몬의 형수인 마누엘라가 보관하고 있던 라몬의 친필 시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며, 그의 글과 그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줄리아가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이에, 라몬의 소송은 형식적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기각당한다.

로사는 인근 마을에 사는 노동자로, 홀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살아간다. 그녀는 라몬의 이야기를 TV에서 우연히 접하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라몬을 설득하러 찾아온다. 힘든 삶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로사는 라몬에게 죽음은 도망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라몬은 로사의 설득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즈네는 라몬의 주변에서 라몬의 심리적 안정과 소송을 돕는 인물이다. 라몬은 1년 전, 자신을 죽게 도와달라고 즈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즈네는 심리적 도움과 합법적 지원만 가능하다면서도 그의 주변에 머물렀다. 즈네는 라몬을 지켜보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뚜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줄리아가 입원해 있는 동안, 즈네는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는 줄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은 결정할 자유를 주지 않아요. 두려움에 싸여 행동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리고 라몬의 편지를 줄리아에게 전한다. 그 이후로, 줄리아와 라몬은 편지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하고, 사랑의 감정까지 느낀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전통적 생명 윤리를 내세우는 이들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라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윤리적 요구라고 비판한다. TV에 등장한 프란시스코 데 갈다르 신부는 스스로도 사지마비 장애인이었지만, 라몬이 안락사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마도 주위 사람들이 그가 필요하는 애정이나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말에 대해 라몬은 물론, 라몬을 헌신적으로 돌봐온 라몬의 가족들 모두가 모욕감을 느낀다. 라몬이 죽음을 희망하는 것은 가족의 돌봄이나 헌신, 사랑과는 무관한, 자신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얼마 후 프란시스코 신부는 라몬의 집을 직접 찾아와 라몬을 설득하려 하지만, 라몬과 가족들에게 면박만 당한다.

라몬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법원과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아주 멀쩡하고 뚜렷한 의지를 갖고 안락사를 희망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가족들과 줄리아, 즈네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의 어려운 이동을 결심한다. 법원 앞에는 ‘삶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라몬을 지지하는 시위에 나선 시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법정은 라몬이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돌려보낸다.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된 로사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호소할 곳도 없는 처지를 경험하면서, 라몬을 돕겠다고 나선다. 로사는 그를 통해 오히려 자신이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라몬의 선택이 결코 도망가는 것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 결국 라몬은 로사의 도움 속에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외출을 감행한다.

라몬은 “판사님들, 정치, 종교 당국자 여러분. 당신들에게 존엄을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들의 양심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제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전 적어도 존엄 있게 죽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도상의 나태함에 지친 저는 부득이 죄인처럼 숨어서 죽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들이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작은 행동들로 주의 깊게 나뉘어 있다는 사실과 몇몇 우정어린 손길로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라는, 촬영된 영상 속의 말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작은 도움을 준 조력자들을 처벌하지 말 것과 자신의 선택은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의한 것임을 밝혀두고 죽음에 이른다.

영화평론가 김지미는 이 영화를 프란시스코 신부로 대표되는 전통적 윤리를 고집하는 이들에 대한 “라몬의 통쾌한 판정승”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¹⁰⁾ 이 영화는 2004년에 개봉되었는데, 당시에는 스페인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었지만 2021년 6월 스페인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이 합법화되었다. 영화가 바탕으로 한, 실존인물 라몬 삼페드로¹¹⁾가 사망한 것이 1998년이었으니, 라몬의 실제 ‘판정승’까지는 23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었다.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도인 스페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EU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이어 네 번째로 합법화되었다. 2021년 시행된 스페인의 법안은 의료진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안락사’와 환자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살’,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단, 구체적으로 심각한 불치병을 갖고 있거나 만성적이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 스스로 명확한 의사를 표명한 경우 등 뚜렷한 요건과 기준들을 제시해두고 있다.

10) 김지미, <잘 죽고 싶은 욕망, <씨 인사이드>>, 『씨네21』, 2007.3.14.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45225 (접속일 2024.1.11.)

11) 실존 인물 라몬 삼페드로의 저서도 한국에 번역 출간되어 있다. 라몬 삼페드로,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였다』, 김정주 역, 지식의 숲, 2006.

영화 <씨 인사이드>에서 라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지점을 고민해볼 수 있게 된다. 첫째,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어도 좋은가. 둘째,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가령, 죽음이 임박한 시한부 환자나 고령의 중증 환자로 한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라몬의 경우처럼 행동이나 생각의 자율성을 상실한 중증의 장애인들에게도 허락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를 정할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의사인가, 재판관인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인가. 넷째, 만약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죽음에 이르는 방식과 도구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씨 인사이드>의 라몬은 시한부 환자도 아니었고, 의사나 재판관의 처방이나 허락 없었다. 하지만 라몬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했다. 영화는 라몬이 걷거나 날아다니는 상상 속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의지를 표현하였고, 엔딩 장면에서도 바다 위를 비행하는 카메라를 통해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직 자유와 의지에 모든 판단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몬의 사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기에, 적절한 범위와 요건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2-2.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죽을 것인가: <다 잘된 거야>

프랑수와 오종(François Ozon) 감독의 2021년 영화 <다 잘된 거야> (Everything went fine / Tout s'est bien passé)는 소피 마르소, 앙드레 뒤슬리에 주연의 프랑스 영화다. 2013년에 나온 엠마누엘 베르네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되었고, 한국에는 2022년 9월에 개봉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 개봉되어 큰 화제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의 대표적 감독 중 한 명인 프랑수와 오종의 작품으로, 소피 마르소와 앙드레 뒤솔리에의 열연이 주목을 받기도 했던 작품이다.



〈그림 1〉 영화 <다 잘된 거야>의 한국 개봉 포스터

이 영화의 한국 개봉 포스터는 여러 버전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끝을 선택하고 시작된 조금 다른, 작별”이라는 카피가,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는 “아빠에게, 조금 다른, 작별을, 부탁받았다.”라는 카피가 적혀 있다. 이 영화의 핵심적 줄거리와 주제를 짐작하게 해주는 문구다.

영화가 시작되면, 두 자매 중 언니인 엠마뉘엘(소피 마르소 분)이 파스칼(제랄딘 팔리아스 분)로부터 아버지인 앙드레(앙드레 뒤솔리에 분)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응급조치와 MRI 검사를 마친 뒤 아버지는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뇌경색과 폐색

전증 등 여러 합병증과 마비 증세로 인해 거동이 어렵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처지와 상태에 대해 크게 절망한다.

아버지 앙드레는 소위 말하는 ‘와상(臥床) 환자’가 되었다. 마비 증세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만 했다. 때로는 변을 가리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마시는 물조차도 잘못하여 폐로 흘러 들어갈까봐 젤리 형태로 된 것을 먹어야만 하는 중증 환자가 되었다. 어머니가 파킨슨병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어서, 익숙해졌을 법도 하지만, 딸에게도 앙드레 본인에게도 모두 익숙하지 않은 질병과 고통이었다.

며칠 뒤 노인 전문병원인 브로카 병원으로 전원(轉院)한 뒤,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엠마누엘에게 아버지는 “끝내고 싶으니 도와다오.”라고 말한다.¹²⁾ 엠마누엘은 같은 이야기를 몇 차례 반복하여 말하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놀라서 병원을 뛰쳐 나간다. 며칠 뒤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살게 두지 마. 이진 내가 아니야.”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도 한다.

사춘기 시절,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적도 있었던 엠마누엘이지만, 아버지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말한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엠마누엘은 아버지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본다. 엠마누엘은 ‘존엄사 금지법’ 때문에 현재 상태의 아버지 병환으로는 프랑스에서 존엄사나 안락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스위스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전한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잘 됐다.”라고 말한다.

12) 이 대목이 원작 소설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물론 아버지가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음을, 그리고 딸은 그 발언에 충격을 받았음을 강조한 표현일 것이다. : “끝내게 네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나는 얼어 붙었다. 아버지는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좀 더 크게 반복했다. 끝내게 네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사고가 난 뒤로 아버지는 이렇게 똑똑히 말한 적이 없었다.” 엠마누엘 베르네임, 『다 잘된 거야』, 이원희 역, 작가정신, 2016. (교보문고 e-book, 19/70쪽.)

엠마뉘엘이 아버지의 부탁을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는 중에, 아버지의 병환은 다소 완화되었다. 잠시지만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의사는 2주 후면 퇴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퇴원을 거부한다. 여전히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희망한 것이다. 아버지는 이 상태로 더 이상 시간을 보냈을 때,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한다.

아버지는 엠마뉘엘의 도움으로, 스위스에서 온, “존엄사”를 돕는다는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자발적인 죽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마지막에 아버지의 조력사망 계획이 프랑스 경찰에게 알려져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스위스로 향한다. 두 딸은 위험 부담 때문에 스위스에 함께 가지는 못했다. 엠마뉘엘은 조력사 단체 관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아버지가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를 들으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박중철은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에서, 잘 죽는다는 것, ‘좋은 죽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는 것’이라는 수잔 호벤의 문장을 인용하기도 하고, ‘병원 사망보다 나쁜 죽음은 없다. 잘 죽는다는 것은 집에서 죽는 것이다.’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듀크대 학장인 앨런 프랜시스¹³⁾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조력자살, 혹은 ‘조력존엄사’를 시행하기 위해 아버지는 홀로 스위스로 향한다. ‘좋은 죽음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는 것’이라면 <다 잘된 거야>의 아버지 앙드레는 ‘좋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사후 조력사 단체 관계자가 엠마뉘엘에게, 그리고 엠마뉘엘이 파스칼에게 말한 것처럼 “다 잘된 거

13) 박중철, 앞의 책, 19쪽.

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에게는 행복하고 좋은 죽음이었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이 임종을 지킬 수 없는 스위스에서 홀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집에서 죽는 것이다.’라는 명제에는 부합하지 못한 셈이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딸들이 스위스로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앙드레는 생의 마감을 앞두고 손자의 음악 연주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자신이 즐겨 가던 단골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기도 했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잠시, 딸인 엠마누엘의 집에 들르기도 했다. 아마도 아버지의 동성(同性) 연인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엠마누엘의 집으로 잠시 피신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휠체어는 좁은 엘리베이터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엠마누엘의 남자친구인 세르주가 간신히 아버지를 안아 옮기긴 했지만, 대부분 평범한 가정의 구조는 휠체어를 탄 환자나 침대에 누워 있는 외상 환자가 출입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다. 사소한 장면 같지만, 특히 아파트 위주의 한국의 주거 문화에서는 병원을 자주 오가야 하는 중증의 환자가 가정에 머물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가 <다 잘된 거야>를 보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언제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해 노년에 이른 사람들은 미리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유언장이나 유서의 관리는 물론, 가족과 친지, 주변에 대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둘째, 죽음이 임박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심리적 안정과 의료적 안전성, 문화적 관습, 현실적 공간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정과 의료기관 중 어떤 곳

이 더 적합할 것인가. 셋째, 극심한 고통이 수시로 찾아오고,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환자들의 돌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며, 돌봄의 지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령, 배변조차 통제하지 못하거나 상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가족이나 주변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넷째, 죽음의 순간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호스피스 기관이나 조력사 단체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고민과 답변도 중요하다. 하지만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초고령사회에서는 사회적 차원 고민과 답변, 대안의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3.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 대한 경고 : 〈플랜75〉

2019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10년〉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제작을 맡고, 다섯 명의 젊은 감독이 각기 만든 짧은 단편 영화들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다. 1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을 다룬, 홍콩, 대만, 태국, 일본 4개국의 글로벌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일본에서 제작된 영화 〈10년〉은 인공지능, 환경오염, 안락사 등 10년 뒤의 근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내용들이 인상적으로 펼쳐지는 SF 영화다. 그 중 첫 번째 단편인 〈플랜75〉는 다음과 같은 광고 영상과 함께 시작한다.

당신의 선택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 사후 정리, 심리 상담 등 각종 상담.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 특별의료기관 소개. 고통이나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돕는 평온한 여정을 위해. 플랜 75, 당신의 임종을 돕는 후생성 인구 관리국.

이 영화는 작은 패치 하나를 목덜미에 붙이면, 별다른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이 오면서 생을 마감하도록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가까운 미래가 배경이다. 이 17분짜리 단편 영화가 화제를 모으게 되면서, 113분짜리 장편 영화로도 제작되어 2022년 칸 영화제 황금카메라상 특별언급, 2022년 데살로니키 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과 인권상, 2023년 프리부르 국제영화제 대상을 받기도 했다. 본 논문은 〈10년〉에 포함된 단편 〈플랜75〉를 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¹⁴⁾

단편 〈플랜75〉는 ‘플랜75’라는 안락사 제도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은 시청 공무원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요양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만나고 가입을 설득한다. ‘플랜75’의 대상자는 10만 엔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그가 만난 노인은 ‘10만 엔’을 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신이 더 늙고 병들어 길에서 죽어나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안심하면서도, 언니가 죽기 전에 이런 제도가 나오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는 이도 있었다.

‘플랜75’의 시행과 더불어, 연명치료는 금지되었고 치매 환자들은 80%가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제도를 홍보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인공의 가족사도 편안하지는 않다. 그의 장모님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집을 나섰다가 사라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아내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안락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쓸쓸하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라고 만류하는 주인공에게, 아내는 “남들에게는 권하고 다니는 주제에.”라고 쏘아붙인다.

14) 논문의 투고 시점을 기준으로 장편 영화는 개봉 예정이었기 때문에 단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편 〈플랜75〉에 대해서는 논문의 수정 과정에서 반영하여, 이 절의 뒤에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플랜75〉의 주인공은 주어진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 하지만, 시종 그의 표정은 어둡고 침울하다. 홍보업무를 하다가 다른 시민으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는 일도 벌어진다. ‘플랜75’는 존엄하고 평온한 죽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홍보되었지만, 실체는 존엄함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주인공이 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교육을 받을 때, 강사는 고소득층이나 중산층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소비활동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강사는 ‘플랜75’의 홍보 대상은 국가가 먹여 살려야만 하는 가난하고 병든 노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플랜75’의 실체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국가의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영화의 후반부, ‘플랜75’에 가입한 노인이 패치를 붙이고 이내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나온다. 발목에는 바코드가 붙은 인식표를 찬 채, 커튼 가림막이 쳐진 체육관 바닥 위의 환자용 침대 위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노인들은 기계적으로 시신을 이송하는 이들의 손에 하나둘씩 그곳을 떠나간다.

일본은 이미 2005년에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임을 의미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 기준으로는 노인인구 비중이 29.5%에 달한다. 〈플랜75〉는 현재, 인구가 아주 적은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처한 현실과 미래를 다소 과장되지만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 초반, 주인공이 ‘플랜75’에 가입 권유 대상으로 삼았던 한 노인은,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죽어 나가는 현실을 보고 “이게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모습이 맞나 싶더군.”이라고 말하면서, ‘플랜75’ 제도가 생겨서 좋다고 웃어 보인다. 주인공에게 ‘플랜75’ 홍보 방법을 교육해주던 강사 모습 뒤로는 “사회보험비 200조 엔 초과, 총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프레젠테

이선 화면이 펼쳐져 있다.

영화 속 노인이 말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다. 2023년 10월 14일, 일본의 한 도시 공원에 86세 모친을 버려두고 떠나 사망하게 한 57세 아들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¹⁵⁾ 그보다 얼마 전에는, 일본 도쿄대 출신으로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인 나리타 유스케의 발언이 화제가 된 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해법이 “결국 노인 집단 자살이나 집단 할복”이 되지 않겠냐는 발언이었다.¹⁶⁾ 너무나 암울한 미래를 그린 것 같던 <플랜75> 속의 사회가 오히려 따뜻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의 뉴스들이었다.

일본의 노인 문제 전문가인 고지마 카츠토시는 자신의 저서 『이제 노인은 필요 없다』에서 노인이나 환자를 간병하고 돌보는 일을 의미하는 일본의 단어 ‘개호(介護)’가 전철 안 광고판에서 쉽게 눈에 띄지만, 이제 곧 그 공간은 ‘안락사’라는 단어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¹⁷⁾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올해 2024년 말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일본보다는 뒤늦은 것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편이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뉴스와 사례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고독사 문제, 특히 독거 노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고독사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⁸⁾

15) 윤경민, <현대판 고려장? 86세 모친 공원에 버려 숨지게 한 57세 아들 체포>, 『헬로 TV 뉴스』, 2023.12.4.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6944>
(접속일 2024.1.11.)

16) 홍석우, <“초고령 사회 해법은 고려장?” ... 극단적 주장 논란 휩싸인 일본>, 『KBS』, 2023.2.1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05990> (접속일 2024.1.11.)

17) 이윤주, 「일본 대중문화에 투영된 초고령사회의 노인 인식」, 『일본어문학』 제93집, 2022, 295-296쪽.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 반론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실제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플랜75>는 임종 직전이라거나 질병이나 장애 등과 상관없이 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선택일 수 있을 것이라고만은 생각하기 어렵다.

<플랜75>는 짙막한 단편 영화이지만, 우리에게 간단하지 않은 고민을 안겨준다. 첫째,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그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둘째, 노년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가가 죽음을 관리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노년의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독사나 치매 노인의 돌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 가족은 각기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113분 분량으로 만들어진 2022년작 장편 <플랜75>에는 보다 확장되고 다양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과 가난으로 내몰리게 되는 노인 실업(失業) 문제를 보여준다. ‘존엄사’로 포장된 죽음이 단지 공포심이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의 강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독거 노인의 고독사 문

18) 이은영은 ‘공간적 고독사’와 더불어 ‘관계적 고독사’의 문제를 주목한 바 있다.

이은영,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적 고독사와 전인적 치료를 위한 가능성 고찰」, 『죽음의 시공간: 삶 너머의 의료인문학』, 모시는사람들, 2023, 83-115쪽.

제, 노인들에 대한 젊은 층의 혐오 감정의 문제는 물론,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돌봄 노동이나 안락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의 비인간적 업무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도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플랜75' 홍보와 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플랜75' 콜센터 노동자의 감정 노동의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안락사'가 허용된 이후 계급화된 서비스 경쟁에 나선 민간 안락사 서비스의 등장도 예견하고 있다.

〈플랜75〉가 보여준 미래는 다소 과장된 것이겠지만, 일본보다도 빠른 추세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세대간 갈등과 노인 빈곤 현상도 심각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현실적 경고로 받아들일 지점이 적지 않다.

3.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현실적 조건들

영화 〈다 잘된 거야〉의 원작인 소설의 끄트머리에는 번역을 맡은 역자의 '옮긴이의 말'¹⁹⁾이 붙어 있다. 여기에는 작가인 엠마뉼엘 베르네임이 이 소설을 썼던 배경과 번역자가 이 소설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소회가 실려 있다. 작가는 실제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놓고 있다.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은 욕망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되었죠. 법적인 문제로 나는 죽으러 가는 아버지와 스위스까지 동행할 수 없었어요. 다 끝난 뒤에도 아버지를 보러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도둑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글을 쓰는 것이 내 이야기를 온전

19) 엠마뉼엘 베르네임, 앞의 책. (e-book 70/70쪽)

히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이어서 번역자는 이렇게 덧붙여 놓았다. “몇 해 전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중환자실을 오가며 익숙해진 의학용어들을 다시 접하며 순간순간 내 어머니와 작가의 아버지가 오버랩되었다.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누누이 말하던 어머니였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일까?”

영화 <씨 인사이드>나 <다 잘된 거야>에서처럼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실제로 선택한 사람은 흔치 않을 수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 이입을 하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소설 <다 잘된 거야>의 번역자의 말처럼, 고령이나 중증의 환자를 돌보면서 병원을 오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어떻게 해야 좋은 죽음을 맞이하며 이별할 것인가?”에 대한 지점 때문일 것이다.

2016년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널리 홍보되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꽤 널리 확산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서명한 작성자가 약 140만 명에 이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 국민은 201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미 87%를 넘어섰다.²⁰⁾ 당시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87%가 찬성하였고, 부모나 배우자가 대상일 경우에는 6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상황과 가족의 상황일 때에, 다소 다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의 이른바 ‘조력존엄사법’ 발의를 계기로 2022년 7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입법’에 대해서 응답자의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

20) 방윤영,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87% ... 가족이면?>, 『머니투데이』, 2013.9.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90417541754052>
(접속일 2024.1.11.)

다.21) 2019년 서울신문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료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이나 가족이 불치병이면 안락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였다.22) 특히 본인이 해당자일 경우에는 86.8%가 안락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가족이 대상일 경우에 허용하겠다는 답변도 3.4%를 차지했다.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는 물론, 안락사와 '조력존엄사'에 대한 동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연명치료의 경우, 사전의향서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를 연명치료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합의되기가 어렵고, 그 기준을 환자나 가족들에게 오해 없이 설명하기란 더욱 어렵다. 사전에 일정한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질병이라도 처방의 범위와 종류는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것은 비교적 명백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보조적 호흡 장치의 활용이나 기도삽관, 승압제의 사용 등을 연명치료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했을 때, '무의미'한 것인가의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영화 <씨 인사이드>와 <다 잘된 거야>의 경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안락사나 조력자살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

21) 박경훈,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말기 환자 '조력존엄사' 입법 찬성>, 『이데일리』, 2022.7.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55606632394192>

(접속일 2024.1.11.)

22) 임주형 외, <자신이나 가족이 불치병이면 90% 안락사 의향>, 『서울신문』, 2019.3.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8005004>

(접속일 2024.1.11.)

기를 만들기도 했다. 외상 환자가 자신의 삶과 자유를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죽음을 희망하면서, ‘조력사’, 혹은 ‘조력존엄사’를 선택한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은 〈씨 인사이드〉와 〈다 잘된 거야〉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영화에서 라몬과 앙드레가 처한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씨 인사이드〉의 라몬은 아버지와 형, 형수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서 집에서 지내고 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돌볼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시의 창작도 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의식과 의지, 대화 능력을 갖고 있다. 자신을 찾아온 여인들과의 사랑을 꿈꾸기도 할 정도로, 아직 젊고 욕망도 분명하다. 하지만 사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상태의 장애를 가지고 28년의 긴 세월을 살아왔다.

반면 〈다 잘된 거야〉의 앙드레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의 발병으로 거동과 의식, 행동에 제약이 왔다. 여러 질병과 장애가 급격히 찾아온 경우였다. 나이는 이미 노년으로 접어들어 있었고, 갑작스럽긴 하지만 생을 마감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 가까이서 돌봄과 간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병원을 벗어나면, 휠체어를 타고 딸의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변의 인물들이 조금씩 도와 죽음에 도달했던 라몬과는 달리, 앙드레는 조직적인 단체 기관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영화적 표현으로 봤을 때, 〈씨 인사이드〉의 라몬은 꿈과 상상을 통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걸어 움직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키스를 나누기도 했던 것처럼, 그의 죽음은 결국 자유로움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역시도 바다 위를 날아가는 듯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마무리된다. 반면 〈다 잘된 거야〉의 경

우는, 모든 게 잘 끝났고 앙드레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엠마누엘이 파스칼에게 “다 잘 끝났대.”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끝맺음에도 불구하고, 엠마누엘이 흘리는 눈물을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원하는 죽음에 도달했지만, 남은 가족에게 남은 회한과 슬픔에 초점을 맞춘 엔딩 장면이다.

한국의 경우에, 현재 안락사는 물론 조력자살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다 잘된 거야>의 앙드레의 경우처럼, 스위스 조력사 단체 디그니타스의 도움을 얻어 스스로 생명을 중단한 사람도 존재한다. 서울신문이 2019년에 연재한 기획취재 기사에서 두 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택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서울신문은 2023년의 후속보도를 통해 스위스에서 안락사 혹은 조력사망한 한국인이 10명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²³⁾ 2019년 서울신문의 기획 기사들²⁴⁾과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낸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²⁵⁾에 따르면, 박정호(가명)라는 인물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고 디그니타스의 도움으로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스위스로 향했을 때, 동행했던 친구가 있었다. 케빈(가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던 그 친구는 ‘자살방조죄’라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취재진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에서 이렇게 적어놓았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저는 친구의 죽음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가 바랐던 바일 겁니다. (중략)

23) 신용아 외, <금기된 죽음, 안락사 - 스위스에서 삶 끝낸 한국인 최소 10명... 그 길, 300명이 걷고 있다>, 『서울신문』, 2023.7.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0002002> (접속일 2024.1.11.)

24) 유영규 외,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서울신문』, 2019.3.7.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euthanasia>
(접속일 2024.1.11.)

25) 유영규 외,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북룸마, 2020.

스위스에서 그는 자기 삶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었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적어도 제게 친구의 죽음은 존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 스스로는 존엄한 죽음을 택했다고 확신합니다.” 죽음을 직접 선택한 친구와 달리, 동행자였던 친구는 그 경험이 결코 존엄한 경험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현재 케빈은 ‘존엄사’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존엄사 관련 시민운동을 준비하고 있다.²⁶⁾

영화 <씨 인사이드>와 <다 잘된 거야>에서 라몬과 앙드레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로 인해 주변 인물이나 가족은 범법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누군가가 삶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타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 프랑스가 근래 긴 시간 동안 개최했던 존엄사 관련 ‘시민공회’에서 소위 ‘조력존엄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 중의 하나는 “위선의 종식”이었다.²⁷⁾ 인접한 국가인 스위스와 벨기에로 이동한 프랑스인들이 안락사나 조력사를 실행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프랑스 국내법만으로 그 시도를 ‘불법’으로 막아놓는 일은 그 자체로 ‘위선’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안규백 의원이 2022년 발의한 ‘조력존엄사법’도 한국도 이제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아니 아시아권에서는 어쩌면 가장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법률이라는 제도 안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도 이 법률의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다. 하지만 아직 이 법안은 시기상조이며,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6) 천정환 외, 「대담: 웰다잉 담론을 넘어, 조력존엄사 논쟁과 ‘생명’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 『문명과 경계』 제6호,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2023, 262쪽.

27) 조태구,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위하여: 프랑스의 안락사 논의」,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2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23, 83쪽.

한국의 경우는 안락사나 조력사를 합법화한 나라들과 사회 문화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보편적 의료 혜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도 감안해야만 한다. 고령자나 중증의 환자,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과 간병의 부담이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빈번한 현실도 직시해야만 한다.²⁸⁾

그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로, 안락사나 조력사를 도입했을 경우, 어떠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 영화 <플랜75>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OECD의 보건 의료 분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비슷한 보건 의료적 상황에 놓여 있다.²⁹⁾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성은 높고,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은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최근 한국은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요양병원과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고령 환자들의 공적 돌봄의 비중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일본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보다는 재택의료, 자택요양, 방문요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³⁰⁾

그런데 어떤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가파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일본 못지않은 의료비 부담, 재정 부담이 눈앞에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양시설과 병원, 사설 재가요양 업체들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미흡한 점도 문제다. 무

28) 유영규 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참조.

29) 일본과 한국의 간병과 돌봄, 개호 문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최성민, 「노인 간병과 서사적 상상력 : 한국과 일본의 간병 소설을 통하여」, 『비교한국학』 제2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51-83쪽을 참조.

30) 시바하라 케이이치, 『초고령사회 일본, 재택의료를 실험하다』, 장학 역, 청년의사, 2021.

엇보다 병원과 요양시설을 오가며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공적 체계 속에 노년과 죽음을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과연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존엄사’라 이름 붙은 정책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에 도달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플랜75>가 그저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2012년 캐나다에서는 안락사를 금지한 조항이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고, 2016년에는 임종이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락사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는 존엄사가 합법화되었다. 이후 불치병과 정신질환 등으로 허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중이다. 캐나다에서는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라 불리는 ‘의료 조력자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캐나다에서 MAID를 택한 사람은 1만 324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1.2%가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의 4.1%에 달하는 숫자다.³¹⁾ MAID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MAID를 과도하게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준이 한번 완화되기 시작하자, “미끄러운 비탈길”을 타고 기준과 범위가 지나치게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집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요청하던 패럴림픽 챔피언 출신 크리스틴 고티에게 “그렇게 절박하다면 MAID를 제공할 것이다.”는 연락이 왔다는 보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진 MAID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해준다.³²⁾

31) 김소영, <“미성년자도 안락사 허용 검토 중”...세계에서 안락사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인 캐나다 근황>, 『인사이트』, 2023.12.26.

<https://www.insight.co.kr/news/458391> (접속일 2024.1.11.)

32) Tamás Orbán, “Canada Shatters State-Sponsored Suicide Record”, *The European Conservative*, 2023.6.8.

4. 결론

존엄한 삶을 살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자 권리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과 장애는 워낙 다양하며, 그것이 각자의 신체와 마음에 미치는 고통도 제각각이다. 사회 문화적 환경도 나라와 사회마다 달라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인간의 생명 문제를 인간의 신체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의사(醫師)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의사이자 의료인문학자인 최은경은 의사들이 말기의 환자나 중증의 환자가 평안한 죽음에 들 수 있도록 ‘호스피스’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무의식적, 반사적으로 “빨리 치료해야 한다”, “살려야 한다”를 떠올리는 의료 시스템과 의학 교육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 존엄사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논의에서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게 언급되곤 하는데, 질병과 죽음을 ‘의료의 실패’로 보는 뿌리 깊은 기반 위에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일 것이리라 믿기는 쉽지 않다. 최은경은 만약 존엄사와 관련된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반드시 공적인 영역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락사나 소위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의 이유 중 가장 높은 것은 “죽음의 선택도 인간의 권리”라는 응답이었다.³⁴⁾ 그런데 개인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영화 <씨 인사이드>의 라몬과 <다 잘된 거야>의 앙드레는 모두 자신의 희망한 바대로 죽

<https://europeanconservative.com/articles/news/canada-shatters-state-sponsored-suicide-record/> (접속일 2024.1.11.)

33) 천정환 외, 앞의 글, 291쪽.

34) 유영규 외,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북콤마, 2020, 215-216쪽.

음을 맞이했다. 영화 <플랜75>에서 주인공 공무원이 설득했던 노인들도 자의(自意)에 따라 가입한 '플랜75'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숨을 거두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죽음이 모두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일까.

의사의 판단도, 개인의 결심도 전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명확한 최선의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프랑스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공회'를 열었던 사례는 상당히 시사적이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차분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영화들 속의 인물들과 우리 주변 현실의 여건들을 통해,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는 더 확산되어야 하고, 연구와 담론도 확장되어야 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탐구의 목적은 죽음을 희망하거나 선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가치를 더 깊게 성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은 죽음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아니라, 존엄한 삶으로부터 존엄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영화를 통한 성찰과 고민을 바탕으로, 현실의 조건들을 보다 명확히 직시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씨 인사이드>, 2004. (OTT : Wavve)
프랑소와 오종, <다 잘된 거야>, 2021. (OTT : Wavve)
하야카와 치에 외, <10년>, 2019. (OTT : Netflix)
하야카와 치에, <플랜75>, 2022. (수입·배급 : 찬란)
엠마뉘엘 베르네임, 『다 잘된 거야』, 이원희 역, 작가정신, 2016. (교보문고 e-book)

2. 논문과 단행본

- 라몬 샴페드로,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였다』, 김경주 역, 지식의 숲, 2006.
박중철,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흥익출판미디어그룹, 2022.
성정희, 「영화 <씨 인사이드>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과정」, 『영화와 문학치료』 제1집, 2009, 191-222쪽.
전경화, 「<씨 인사이드>와 <아무르>,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인문학지』 제51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1-34쪽.
전태형, 「영화 <씨 인사이드>를 통해 살펴본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 『인문사회 21』, 제14권 3호, 2023, 3429-3428쪽.
조태구, 「미끄러운 비탈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조력존엄사」, 『인문학연구』 제53권,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51-178쪽.
조태구, 「고통 없이 죽을 권리를 위하여: 프랑스의 안락사 논의」,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2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23, 73-86쪽.
시바하라 케이이치, 『초고령사회 일본, 재택의료를 실험하다』, 장학 역, 청년의사, 2021.
아틀 가완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김희정 역, 부키, 2015.
유영규 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 유영규 외, 『그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다』, 북콤마, 2020.
- 이윤주, 「일본 대중문화에 투영된 초고령사회의 노인 인식」, 『일본어문학』 제93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22, 283-299쪽.
- 이은영,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적 고독사와 전인적 치료를 위한 가능성 고찰」, 『죽음의 시공간: 삶 너머의 의료인문학』, 모시는사람들, 2023, 83-115쪽.
- 차승현 외, 「국의 의사조력자살 입법례 고찰」, 『생명, 윤리와 정책』 제7권 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3, 49-83쪽.
- 천정환 외, 「대담: 웰다잉 담론을 넘어, 조력존엄사 논쟁과 '생명'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 『문명과 경계』 제6호,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2023, 259-312쪽.
- 최성민, 「노인 간병과 서사적 상상력: 한국과 일본의 간병 소설을 통하여」, 『비교한국학』 제2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1, 51-83쪽.

3. 기타자료

- 김소영, 〈“미성년자도 안락사 허용 검토 중”…세계에서 안락사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인 캐나다 근황〉, 『인사이트』, 2023.12.26.
- 김지미, 〈잘 죽고 싶은 욕망, 〈씨 인사이드〉〉, 『씨네21』, 2007.3.14.
- 박경훈,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말기 환자 ‘조력존엄사’ 입법 찬성〉, 『이데일리』, 2022.7.13.
- 방윤영,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87% … 가족이면?〉, 『머니투데이』, 2013.9.5.
- 신용아 외, 〈금기된 죽음, 안락사 - 스위스서 삶 끝낸 한국인 최소 10명… 그 길, 300명이 걸고 있다〉, 『서울신문』, 2023.7.10.
- 유영규 외,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서울신문』, 2019.3.7.
- 윤경민, 〈현대판 고려장? 86세 모친 공원에 버려 숨지게 한 57세 아들 체포〉, 『헬로TV 뉴스』, 2023.12.4.
- 임주형 외, 〈자신이나 가족이 불치병이면 90% 안락사 의향〉, 『서울신문』, 2019.3.8.
- 홍석우, 〈“초고령 사회 해법은 고려장?” … 극단적 주장 논란 휩싸인 일본〉, 『KBS』, 2023.2.15.
- Tamás Orbán, “Canada Shatters State-Sponsored Suicide Record”, *The*

European Conservative, 2023.6.8.

OECD, *Health at a Glance 2023*, 2023.

(<https://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Abstract

Conditions for a Dignified Death and a Dignified Life - Bioethics between movies and reality

Choi, Sung-min(Kyung Hee University)

Most modern people face death in hospitals. In this process, many people spend their last hours going to and from the hospital. It's common to face the end alone, separated from family, feeling loneliness. While human lifespan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the quality of life for those nearing death has not necessarily improved. The argument is spreading that one should be able to choose a dignified death in order to conclude life with dignit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films that directly address the issue of dignified death, or euthanasia, such as <Sea Inside>, <Everything went fine>, and <Plan 75>. <Sea Inside> shows the process of a quadriplegic patient choosing euthanasia to maintain the dignity of his life. <Everything went fine> is a film about a daughter who, after much anguish, agrees to assist in her father's death. <Plan 75> is a short film included in the omnibus movie <10 Years>, depicting a future society where euthanasia is a common practice, presented as a science fiction narrative.

This article explores what our society needs to consider and reflect on for a dignified death through these films. Korean society is on the brink of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The consideration of how to die is not just a problem for a minority of sick and elderly people. In the National Assembly, a bill related to 'assisted dignified death' has already been proposed.

The purpose of exploring dignified death is not to create a society that hopes for or chooses death, but to build one where we can live with dignity. Ultimately, it is to reflect more deeply on the value of human life. The goal we should reach is

not a crossroads where we choose between life and death, but a path that leads from a dignified life to a dignified death. Based on reflections and contemplations through films, it is hoped that we can more clearly confront the realities of our conditions.

(Keywords: 〈Sea Inside〉, 〈Everything went fine〉, 〈Plan 75〉, death with dignity, euthanasia, assisted dying, super-aging society, 'Well-dying')

■ 논문투고일 : 2024년 1월 12일

논문심사일 : 2024년 2월 9일

수정완료일 : 2024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19일